한국불교 중흥 원력 2년만에 102억여 원

백만원력결집불사 2주년, 성과와 과제

백만불자 · 매일 100원 보시
원력 기반한 새 모연시스템
2020년 코로나19 사태지속
어려움 속에서도 동참 확산
10대불사 계획 지속적 추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불자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 중흥을 일구자는 취지에서 2020년 첫발을 디딘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올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불교계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원력이 차곡차곡 더해져 102억여 원이 모연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진행 경과와 10대 목적불사 현황을 밝혔다.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에 따르면 출범 2년을 맞은 올해 3월 31일까지 모연된 총액은 102억 1242만 473원으로 집계됐다.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인도 부다가야 건립불사를 위해 기탁한 부지 2000평을 비롯해, CMS와 약정기탁, 발우저금통 배포 등 여러 가지 모금방법으로 개인과 사찰, 단체의 십시일반 정성이 한데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장 금곡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백만 명의 원력보살이 하루 100원씩을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불사"라며 "전종도, 나아가 모든 불자들의 대승원력에 기반한 참여로 세상과 함께하고자 시작된 만큼, 교구본사, 사찰, 스님, 불자 및 뜻 있는 수많은 분의 수희동참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를 밝혔다.

금곡 스님은 이날 백만원력 10대 불사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10대 불사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불사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및 '광제사' 대웅전 건립 △육해공군본부 호국홍제사 건립불사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10.27법난기념관 건립 △불교요양원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 △나눔 기금 및 신도시 거점포교당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건립불사 등이 이미 건립에 착수해 순조로운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과 백년원력결집위원장 금곡 스님이 홍보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백만원력결집 10대 불사 추진현황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부지 매입 진행(8건 10필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올 5월 대웅전 상량식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광제사' 대웅전 건립	올 9월 상량식
육해공군본부 호국홍제사 건립	올 4월 착공 예정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2022년 상량식 봉행
10.27법난기념관 건립	2024년 착공 예정
불교요양원 건립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부지 매입 협의 중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5월 추진위 발족 예정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	올 5월 이후 착공 예정
나눔 기금 · 신도시 거점포교당 조성	연중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불사는 지난해 11월 붓다팔라 스님과 건축기술자 등이 특별비자로 현지에 입국하는 등 직할교구사무처 주도로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올 4월부터는 숙소동과 보건소동 기초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 중 분황사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건립 불사는 각 44%,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웅전은 5월 초 정초식 봉행을 시작으로 9월 상량식에 이어 2022년 6월경 준공식을 봉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인도 분황사와 광제사 부처님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부처님 봉안불사 자문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군종교구와 총무원 사찰교무팀이 함께 추진 중인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는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올 10월 교육관 건립을 마무리 후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불사는 2021년 6월 건축인허가 완료를 전제로 올 11월 불사를 본격화해 2022년 상량식, 2024년 준공식을 봉행할 계획이며, '10.27 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불사는 올 8월 관련부처의 적정성 검토 이후, 2022년부터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착공해 2027년 법난기념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사를 위한 토지 매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조계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현재 성역화 부지로 4건 4필지 58.2㎡(168.9평), 조계사 구역 부지로 4건 6필지 1351.7㎡(408.81평)을 368억 4천만 원에 매입하는 등 토대 마련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또 승려복지회가 주도하는 불교요양원 건립불사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진행 중이며, 부지 매입 이후에는 불교요양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설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예경사업은 주변 기반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구체적인 입불방식에 대한 공학적 기술검토 용역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경주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 5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건립불사는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된다. 1차 불사는 연면적 총 206.62평으로 대웅전 70.5평, 부대시설 136.05평으로 건립되며 4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5월 착공 예정이다.

나눔 불사는 그동안 종단이 진행해 온 난치병 어린이 치료지원, 영등포쪽방촌 주민을 위한 자비선물을 비롯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스크 지원과 노숙자 및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짜장 자비공양 등이 대표적이며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곡 스님은 "CMS, 발우저금통, ARS, 계좌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자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신다"며 "구체적으로 기간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 한사람 불자들의 원력이 모이고 그분들의 원력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 불자 100만 명이 마음을 모아 한국불교의 새 전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도 "지난해부터 발우저금통 약 9만 3천개를 배포했고 회수율은 약 35% 가량"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백만원력결집법회 등을 통한 현장 홍보와 모금이 완전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동참이 늘고 있다. 하루 100원, 100만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는 취지대로 더 많은 정성이 모일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02)6273-0108

"日정부,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철회하라"

조계종 · 불교환경연대 철회 촉구 성명 잇달아

13일 방류 결정에 규탄 여론 확산

일본 정부가 4월 13일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의 반발여론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가 비판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불교환경연대와 탈핵시민행동 등 종교시민사회계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거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와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4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위원회들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본이 반생명적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 뿐 만 아니라 바다 속에 사는 뭇 생명들에 대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재앙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연쇄적인 살생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한국정부 역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와 상황을 밝히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도 4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뭇생명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의 보존에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핵발전소 사고는 이토록 어렵고 지난한 방사능 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핵발전소 조기폐쇄만이 답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지희 기자

관음종, 기후위기 대응 선포

관세음환경사랑, 4월9일 기자회견

대한불교관음종(이하 관음종) 산하 기후위기 대응 단체인 '관세음환경사랑(상임대표 법관)'이 4월 9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 낙가선원에서 '마음은 따뜻하게, 지구는 시원하게'를 주제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불자들이 주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관음종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실천 강령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기후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관세음환경사랑' 상임대표 법관 스님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관세음환경사랑' 상임대표 법관 스님은 "기후위기는 생명의 근원적 질서와 연기적 관계를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 충족과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이 빚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관세음환경사랑'은 △빈그릇 운동(음식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채식위주 식단 △천연수세미, 천연세제와 같은 친환경제품 선택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실내 온도 적정히 유지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건강과 환경을 위해 근거리는 걷고, 원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실천 강령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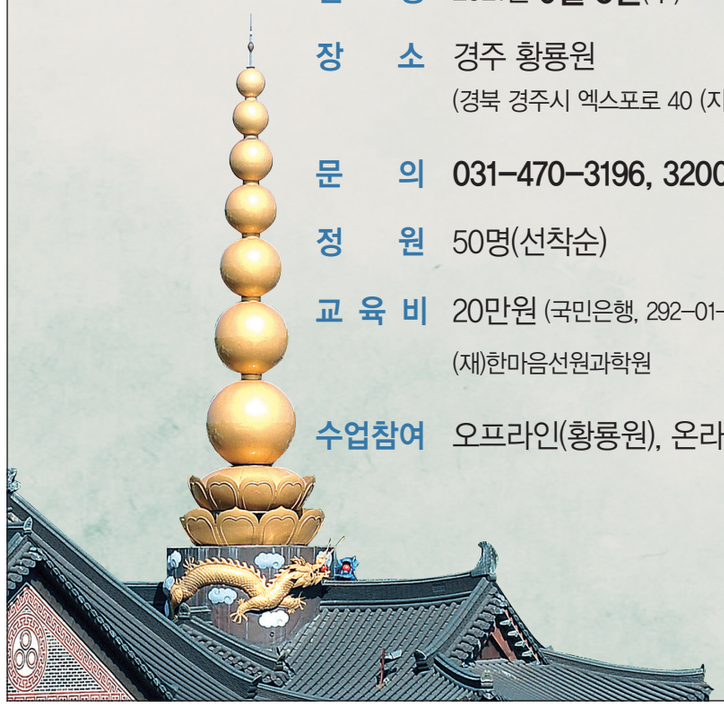
한편 관음종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 기후협약 채택 계기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하고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제56차 중앙종회를 통하여 '관세음환경사랑'의 단체설립을 승인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